

“1+1=1... ‘핑퐁’처럼 우린 천생연분”

(타이틀곡)

던 프로듀싱, 현아 비주얼 디렉팅 ‘핑퐁’ 등 모든 곡 공동 작사·작곡 “잘 맞지만 실제론 정반대의 성격”



연예계 ‘공식 커플’인 가수 던(왼쪽)과 현아가 듀오로 나서 첫 EP 앨범 ‘1+1=1’을 내놓은 9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양한 감정을 담았다. 정작 현아는 “앨범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냐”면서 “진정한 ‘케미’가 뽀짝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공냥공냥’ 사랑이 아니라 무대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제법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던의 부분을 보고 놀랐다. 마치 춤 배틀을 펼치는 것 같았다”고 자랑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평소 서로에 대한 과감한 애정 표현에도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남의 눈치를 보느냐는 거다. SNS나 패션잡지,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이 아니라면 도전할 수 없는 파격적인 포즈도 자주 공개한다.

듀엣 앨범 작업과 최근 공개해 화제를 모은 6년차 커플의 일과 사랑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임핀인핑크 앤유?’는 이런 두 사람의 더욱 깊어진 사랑을 드러냈다.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다른 작업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힘들고 외로운 작업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났어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그런 존재더라고요. 우린 한 몸이예요!” 이형연 기자 annjoy@donga.com

평소 패션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현아는 비주얼 디렉팅으로 참여했다. 타이틀곡 ‘핑퐁’(PING PONG)을 비롯해 모두 4곡의 수록곡은 공동으로 작사·작곡했다.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평소 솔로 활동에서도 강력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능력으로 남다른 입지를 구축해온 두 사

람이 듀엣으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타이틀곡은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귀엽고 톡톡 튀는 가사로 표현했다. 또 다른 수록곡 ‘딤 다이브’, ‘XOXO’, ‘우린 분명 죽을만큼 사랑했다’ 등에도 연인의

원픽 업&다운



한혜진 홍지윤

한혜진 코로나 후유증에 팬들 응원 홍지윤 방역수칙 위반에는 실망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연예계에서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7월 코로나19에 걸렸다 최근 완치 판정을 받은 한혜진이 후유증에도 8일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의 축구경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박수를 받았다. 앞서 “호흡을 평소보다 60~70%가량 밖에 쉴 수 없다”며 후유증을 호소한 그는 이날 소속팀인 ‘FC 구척장신’의 주장으로 최선을 다했다. 비록 3·4위전에서 ‘월드 클라쓰’ 팀에 패했지만, 시청자들은 한혜진을 향해 “잘 싸웠다”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트로트가수 홍지윤, 은가는, 별사랑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 홍지윤이 개인 SNS로 공개한 생일파티 사진으로 인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홍지윤은 “오후 6시 이전에 찍은 것”이라며 거짓 해명을 했고, 서울 양천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들은 결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에 7일 소속사 린브랜딩은 “이유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살기 위해 가족 몰래 택배”...가요 공연기획자가 죄인?

매출 90%↓...공연 장비 먼지만 쌓여 음공협 “코로나에 줄도산, 대책 필요”

“일부는 택배일에 나섰다. 인테리어 용역이나 영업 등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아예 업종을 바꾼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분은 가족이 걱정할까 택배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런 관계자가 적지 않다. 음향이나 조명 등 공연 장비 참고에 쌓이듯 기기에 먼지만 쌓여간다. 참고 임대료는 그것대로 매달 빠져나가고, 수입은 없으니...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고 힘들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내 40여개 대중음악 공연기획·제작사가 올해 3월 발족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의 고기호 부회장이 9일 전해 온 사례다. 그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적지 않은 스태프 등 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대부분 사라진 탓이다. 피해 규모를 묻자 고 부회장은 “매출이 없으니 피해 규모조차 따져

볼 수 없는 회사도 많다”고 말했다.

음공협이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2537건의 대중음악 공연이 진행됐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486건, 하반기에는 740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71건으로 2019년 하반기의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인타파크 콘서트 티켓 매출은 2019년 2474억여원에서 2020년 389억여원 원으로, 예스24는 2019년 980억원에서 2020년 8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음공협이 8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배경이다. 음공협은 “정부의 방

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면서 “그 결과는 매출 90% 감소뿐 아니라 강제적인 공연 취소 및 연기로 인한 줄도산과 폐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가 케미팝 산업의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진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공연업계는 그만큼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연기획사 플래스엔코의 신원규 대표의 말은 그 절박함을 드러낸다.

“대중음악 공연장에서는 비말 확산이 클 거라는 단순 논리만으로 관객들마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침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텝가마솥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1.01.01~2021.12.31]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담 시 (연말연시 제외)
- 배율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 (연 1회 반영)
- 계약 시에는 상담사 방문 상담 후 상담 가능
- 본 상품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추천상품입니다
- 조기 출금 시 다른 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 이후 보장된다. 수익금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회 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담 시 50%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해지보상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기점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 및 고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